

2022년 10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 신명기 2:1-9, 17-19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 신명기 4:1-13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 신명기 12:1-3, 29-32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 | 신명기 20:10-20
-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 신명기 28:1-6, 15-19

1 주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신명기 2:1-9, 17-19**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540장(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1 여는 질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때가 언제가 되든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으십니까?

02 본문 이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후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언약이 가나안에서 4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서와 롯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에돔과 모압, 그리고 모압 족속의 땅을 인정하여 주시므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사건 이후 다시 가나안에 입성을 시도하기까지는 38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2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장대한 족속들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본 이스라엘이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게 전멸당할 것이다. 저들과 싸워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하였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이십 세 이상 된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말했던 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8년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고,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시며 약속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취되어 집니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과 권세는 인간의 힘과 상상을 초월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03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2.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외에도 무엇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까? (5, 9, 19절)

04 삶 속으로

1.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나요?

05 암송 구절 신명기 2: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닐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06 자녀와 나눔

1.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 보다 늦어져도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2.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나요?
그런데 너에게도 친구의 그 모습이 있지는 않니?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새524장(통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새
520장(통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01 여는 질문

세상의 법과 규칙,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법을 따르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까?

02 본문 이해

본문은 가나안 입성 직전 모세가 행했던 세 편의 고별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써, 지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졌던 축복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특권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크고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능력과 권세의 근원이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영광스러운 언약을 잊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게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번영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며 그 법도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여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의 삶의 근본이자 인생의 안내자로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했던 의무이고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대로 순종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순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상식과 합리적 사고를 벗어나면 안 되며, 당연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식과 합리성과 내가 정해놓은 삶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 즉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는 순종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이라는 절대적 조건이 동반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는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지시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든 자신의 판단과 주장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은 절대적 순종이 요구되는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03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절)
2.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1, 6절)

04 삶 속으로

1. 하나님의 말씀 중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나는 내 상식과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05 암송 구절 신명기 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06 자녀와 나눔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나요?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새67장(통31장) 영광의 왕께
새214장(통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새321장(통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01 여는 질문

여는 질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있을까요?

02 본문 이해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 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죄악으로 더럽힌 각종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젖과 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와 축복이 그 땅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증한 모든 우상과 죄악의 척결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여야 했고, 그들을 유혹하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 되는 법도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조금도 차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자식들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아픔의 강도는 분명히 다르며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편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구별하여 선택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과 재물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여야 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를 하나님도 가장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편애는 실제로 존재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편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03 말씀 속으로

1.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평생을 지켜 최우선적으로 행할 계명과 법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3절)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입성 후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상을 척결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9-31절)

04 삶 속으로

1.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나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은 내게 있어 전적인 사랑과 경배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위해 이용하는 대상인가요?

05 암송 구절 신명기 12: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06 자녀와 나눔

1.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나요?
2.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새354장(통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새358장(통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01 여는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02 본문 이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관계된 규례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성전(聖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악을 응징하고 제거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무분별한 파괴와 수탈은 절제하여야 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전쟁을 치르되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불의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인데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남에게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내려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전쟁이기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싸움은 나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싸움꾼이 되라고 하십니까? 바로 싸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즉 좋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12절 말씀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뜻에 굴복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린다는 절대 진리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의 종목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 '돈과의 싸움', '미움과 시기와의 싸움', '교만과 탐욕과의 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의 싸움',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좋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좋은 싸움이지만 이기기 힘든 싸움이기에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가 내거는 전쟁의 기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와 믿는 자의 덕을 세우는 것이 내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03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 가나안 영토 밖의 민족에 대해서는 화평을 먼저 제의하게 하셨으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7-18절)
2.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모든 행위와 규범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17절)

04 삶 속으로

1.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에게서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05 암송 구절 신명기 20:17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06 자녀와 나눔

1.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나요?
2.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나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새368장(통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새449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새461장(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01 여는 질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세상적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02 본문 이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는 오직 이스라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순종의 결과인 축복과 불순종의 결과인 저주를 명확하게 알려 주시며, 모든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로써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축복과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선민일지라도 그들의 불순종은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명확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며, 순종의 결실은 번성과 축복이었습니다.

‘순종’과 ‘언약의 성취’라는 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조건적 미래 시제가 됩니다. 현재에 순종이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우리의 미래에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여 나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는 일보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생활의 어려움이 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출구가 없을 때 하나님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학, 취업, 결혼, 이민 등 인생의 중대사뿐만 아니라 쇼핑, 식사, 업무 등 하루 하루의 일상에서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분명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세상을 쫓아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할 것인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될 것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가 될 것인가 그냥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동화된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셨습니다. 선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나, 내 의지를 따라 사는 불순종이나의 양자택일입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03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두신 선택의 조건과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 15절)
2.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어 버린 원인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13-14절)

04 삶 속으로

1.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오직 내가 행한 선택에 의한 결과로 주어집니다. 내 선택에 대한 결과로 내게는 과연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까요, 아니면 책망과 징계가 주어질까요?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해봅시다.
2. 내 과거의 올바른 선택에 의한 결과가 현재 공평하지 않게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05 암송 구절 신명기 28: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06 자녀와 나눔

1.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가 행한대로 그대로 내게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2.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신가요, 아니면 불공평하신가요?

1
Week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Deuteronomy 2:1–9, 17–19**

God Is Faithful to His Promises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Standing on the Promises
I am Thine, O Lord, I Have Heard Thy Voice

01 Opening Discussion

Do you believe that God will surely complete His promises in His time?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go into the land of Canaan and conquer it. God promised Abraham and Isaac, the ancestors of the Israelites that God will give the land of Canaan to the Israelites and He kept his promise a couple of hundred years later. The promise was finally completed after 40 years in the wilderness following the exodus from Egypt and arriving at Mount Sinai. God also remembered the covenant with Esau, the brother of Israel and Lot, and He gave the lands to the descendants of the Moabites and Edomites. This proved that the promises of God go beyond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and His promises are surely completed for every person.

It took 38 years just to make an attempt to enter the land of Canaan after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blamed and disobeyed God by the negative reports from the spies at Kadesh-Barnea. This is the result of the behaviors among the Israelites who did not fully trust and obey God. If the Israelites trusted God's will and power and fully obeyed God, they could have conquered the Canaanites in 2 years. However, after witnessing how big and strong the Canaanites were and how their fortresses were solid and strong, the Israelites felt defeated and discouraged. They blamed God that they would never be able to defeat the Canaanites. The Israelites talked among themselves that they would be totally destroyed by the Canaanites and that they would rather die in the middle of the wilderness instead of being killed by the Canaanites as they engage in battle. God let the predictions of the Israelites come true as they spoke it. Their fear, anticipation, and blame made it happen. As result, no one in the first generation of the exodus who was over 20 years old except Caleb and Joshua survived and entered the land of Canaan. However, after 38 years, the new generation of the Israelites developed a deeper faith that God will definitely complete His promises no matter what. Their absolute faith in God made the impossible possible.

God is faithful, true to Himself, and always sincere in His promises. Therefore, the promise God made with you will definitely be completed. However, we have to remember that the promise of God will be done in God's own will and God's own way.

We want God's promise to be completed in our time, in our favorite ways, and in our anticipated processes. We assume that it should be completed how we believe and how we pray. However the promise of God is completed in God's time, God's favored ways, and the best methods of God's anticipation. It would be the best blessing and grace to witness how God's promise is completed in God's own ways since God's will, power, and authority are transcended over human's. Even though it took over 40 years, God's promise on conquering the land of Canaan is completed. It was the best time for the Israelites to conquer the Canaanites. Let us trust that God surely keeps his promises in the best time and best ways.

03 Into the Word

1. What are the reasons for believers to not worry about anything in any situation? (v. 7)
2. How did God prove that He is faithful with His promises in other matters for the Israelites along with the conquering of the Canaanites? (vv. 5,9,19)

04 Into our life

1. Have you ever received answers to your prayers after faithfully enduring for a long time?
2. Do you anticipate God's blessings and grace to be completed in God's ways and time or in your ways and time?

05 Memory Verse Deuteronomy 2:7

For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He knows you're going through this great wilderness. These forty years the Lord your God has been with you. You have lacked nothing."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1. Can you wait and keep praying to God even in the times when the answer to your prayers is delayed?
2. Do you believe that all the promised blessings of God in the Bible would be completed in God's time?

Whatever You Say



Come to the Saviour, Make no Delay
Whosoever Heareth, Shout, Shout the Sound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01 Opening Discussion

Between the laws and rules of the world and God's laws and commands, which is more important to you? Which one do you prefer to follow?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is text is the conclusion of the first of three farewell sermons that Moses delivered right before his entry into Canaan. It refers to the blessings that were given when they obeyed God's commands. Moses instructs the Israelites to obey God's law that becomes the source of power and authority to make Israel a great and powerful nation.

God's law for Israel was to provide God's special providence to bless and prosper Israel. Setting apart Israel to be a holy chosen nation that worships and obeys God was to let all nations fear God and let all nations know that He is the true one and holy God. Therefore, the law was the foundation and guidance for the lives of the Israelites. God's laws were their duty and responsibility to keep and obey.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is simple. It is a relationship where God commands and humans obey. But aren't we obedient only to what we can accept when it falls under our common sense and logic? It means that the limits of obedience are set. We justify that even God must not deviate from common sense and rational thinking.

And it means my common sense and rationality and the standard of living are more important than God's will, right? In the Bible, there are many promises of God's blessings, namely, the covenant of a blessing. However, it is clear that God's covenant of a blessing sets a clear boundary of obedience. "Whatever God says," must be obeyed. There is no negotiation outside this condition. Whatever God says, directs, or commands, God's covenant must be fulfilled according to God's words, direction and order regardless of your logic, situations, emotions, and volition.

Conquering Canaan required absolute obedience. It was because the conquest of Canaan was impossible with the power and strength of man. However, the conquest of Canaan was

something God had already planned, and it was the path that God led with His power. Therefore, Israel had to absolutely obey God who was leading them. Our lives are entirely in the hands of God. If we truly believe and trust in God, all we have to do is obey “whatever God says.”

03 Into the Word

1. What is the standard of obedience that God requires of his people? (v. 2)
2. What was God’s blessing to Israel who kept the law? (vv. 1,6)

04 Into our life

1. Among God’s commands, what are some things you can obey and some things you cannot obey?
2. Which do you trust more and make it as your living standard: your common sense, your knowledge, or the Word of God?

05 Memory Verse Deuteronomy 4:2

Do not add or subtract from the words I command you, but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your God that I give you.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1. Do you believe that anything can be accomplished if God speaks and commands it?
2. Can you obey whatever God says?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O Worship The King All Glorious Above
Jesus, My Lord to Thee I Cry
To Jesus Who Redeemed Me My life, My Love I Give to Thee

01 Opening Discussion

We confess that we love God. But do you really love God wholeheartedly?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fter conquering the Canaanites and entering into Canaan,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destroy all idols that had filled the land with sin and that had polluted the land. Canaan was a land of blessings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at God had promised to give to Israel through Abraham, Isaac, and Jacob. God wanted this land to flow with God's good 'milk and honey'. When the land was filled with His righteousness, the abundance and blessings from God were to overflow in the land. Therefore, in order to have Canaan become a righteous nation ruled by God, all detestable idols and sins had to be eradicated in advance.

After Israel conquered Canaan, they had to get rid of all idols that could turn Israel's hearts away from God and remove all the sinful elements that would tempt them. God said that nothing should be more precious and be more loved than God, and there cannot be human laws that take precedence over God's commandments. You cannot serve God a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Just as a servant cannot serve two masters, so those who believed in God could value nothing more than God. Obeying God's commandments and laws had to be the top priority in life.

For humans, it is impossible to love and treat people or things the same. There is a Korean expression regarding the love of their children. There are no differentials between any children as all ten fingers feel the same pain if it gets bitten. But the intensity of the pain for each finger could be different. There are definitely children who are more sympathetic than other children.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value more and love more than a particular something. Likewise, not all people will receive God's love because there will be people who reject God's love. Those who love God, obey His Word wholeheartedly and act according to His Word, God considers them special and He values them. Jesus says: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for ye cannot serve both God and riches” (Matthew 6:24). As Christians, we cannot serve both God and the world. I am not saying the world and wealth are horrible. As Christ-followers, our God should be honored and feared above all things and His name should be glorified. We ought to acknowledge all wealth is entrusted to me by God and I should use it to give glory to God. Those who love God the most will be loved by God, and those who exalt God the most will be exalted by God. It is a clear fact that God loves those who love Him. Therefore, it should be our deepest desire to live as a child of God.

03 Into the Word

1. What were the commandments and ordinances that Israel had to keep in Canaan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s the highest priority for them? (vv. 1–3)
2. Why did God tell Israel to destroy idols as the first thing they ought to do when they entered Canaan? (vv. 29–31)

04 Into our life

1. If there is something you love and value more than God, it is an idol. What is your idol that you serve?
2. Do you love and honor God wholeheartedly, or is God for your convenience when you are desperate or in need?

05 Memory Verse Deuteronomy 12:32

Be careful to do all these words that I am commanding you, and you must not add to them or take away from them.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1. Can you love God above all things?
2. Can you promise in your prayer that you will obey the Word of God and live accordingly?

Spiritual War of Israel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There's a Royal Banner

01 Opening Discussion

Is it your utmost value and goal to reveal the glory of God and lift up the name of Jesus Christ?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God gave regulations of war to Israel in order to conquer the land of Canaan. The campaign of Canaan's conquest was supposed to be a holy war to establish a nation where the righteousness of God prevailed. Israel, however, should not have done unrighteous things disgracing the justice of God even if Israel won the war by defeating the enemies. Therefore, this war was not an easy one which is why Israel sought the will of God as well as the help of God. That is the very reason why the spiritual war of Christians is difficult. There are many situations that obscure whether something is right or wrong. There is a time for us to give in to things which surely would be for my benefit. There is a time for us to be criticized even if we did the right thing. There is a time for us to give up things for someone else even if we desperately need them. There is a time for us to turn things down even if we have irresistible opportunities. There is a time for us to do things even if we don't want to.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our spiritual war, even though we must win this war, we always have to seek God's will and help.

In general, the word "fight" has a negative connotation. God, however, gave Israel the strict commandment to fight. Fighting is not good. Then why did God ask his chosen people to be fighters? It is because fighting is not always bad. That is, there is a good war. 1 Timothy 6:12 explains this as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he good fight of Israel's faith was the proclamation of the desolation of those enemies against God, the unchangeable truth of the victory to those following and obeying God's will, and the absolute truth of God's reign with righteousness.

We have to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o be Christians witnessing God's justice. This fight is the fight that we must absolutely win to protect our faith in the name of God. There are events where we must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such as fighting against those who keep us from praying to God and reading the Bible, fighting lust of the flesh, fighting against

the lure of money, fighting against hate and jealousy, fighting against arrogance and greed, fighting against an unforgiving mind, and fighting against injustice. Let's get the victory of the good fight. Because it is difficult for us to win regardless of the good fight, we must fight the spiritual war with the faith of God's promise to be with us and with dependence on God's will. It is the flag of lifting the glory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that we must raise in our spiritual war. If the goal of our spiritual war is lifting the glory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building up the virtue of believers, God will give us victory and use us as a precious means of revealing the glory of God.

03 Into the Word

1. Why did God command Israel to destroy the Canaanites completely, even if he allowed the peace treaty with the peoples outside the land of Canaan? (20:17-18)
2. What must be the standard of deeds and rules of conduct in the Christian spiritual war? (20:17)

04 Into our life

1. What do I, as a Christian, have to eliminate completely in order to fight the spiritual war in the world?
2. Am I living for either the glory of God or for my glory, my satisfaction, and my pleasure?

05 Memory Verse Deuteronomy 20:17

But you shall devote them to complete destruction, the Hittites and the Amorites,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the Hivites and the Jebusites,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1. When my thoughts and God's words are different, can I obey God's will?
2. Am I willing to give up what I like for God's sake?

Consequences of Obedience and Disobedience



Hear Longings
Trust and Obey
Are Ye Able, Said the Master

01 Opening Discussion

What are the worldly temptations that cause my heart to turn away from God even though I know I must obey God's Word?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srael was able to decide for themselves their future before God. God has made Israel's future in Canaan dependent upon Israel themselves. While He made it clear that blessings are the result of obedience and curses the result of disobedience, He said that all blessings and curses will be given as a result of Israel's choices. Identity and status do not always guarantee blessing and salvation. Even if Israel was a distinct chosen people, their disobedience would have brought judgment. God's Word was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The result of disobedience was judgment, and the fruits of obedience were prosperity and blessing.

The words "obedience" and "fulfillment of the covenant" are inseparable. The condition of obedience must be fulfilled so that the covenant of God's blessing will be fulfilled in our future. Thus, these words become a conditional future tense. The condition of obedience in the present must be satisfied, so that the covenant of blessing can be fulfilled in our future. Amid the pain and anxiety of human life, God fulfills the covenant of blessing through obedience. Our life is not easy. There are far more things that don't happen than things that go according to our will. There are more prayers not answered than those answered even if we pray. We don't know how many times the difficulties we face in our homes, at work, in our businesses, in our studies, and in our lives seem insurmountable. We are blocked on all sides and there is no exit. But when there is no way out, we must rely on God for the only way out. Because in any circumstance, through absolute obedience to God, I fulfill the covenant that God has promised me. People always face a situation in which they have to choose something. Not only are you in the midst of life's major events such as going to school, employment, marriage, immigration, but also shopping, eating, and working – you always have to make day-to-day choices. In this way, when you make clear decisions and judgments about everything big and

small, and choose the right one, you won't regret it. God also asks us to make clear choices before Him. "Will you become one who prays or a sinner who rests in prayer?" "Will you follow the Word of God and live in obedience to it, or will you chase after the world and pursue the joy and pleasure of the world?" "Will you be a church-builder or a church-destroyer?" "Will you be the one who leads others or the one who is dragged around by others?" God asks us to choose between living the life set aside as the one who is called by God or being a person who is conformed to the world in compromise. God has placed "life, blessing, death, and curse" before me. The choice is simple. It is an alternative between obedience according to God's Will or disobedience to live according to my life and my will. Choice is in my hand. And I have to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that choice.

03 Into the Word

1. What has God placed as 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the choice before Israel? (28:1, 15)
2. Is there anything I think has been unfairly given to me in the present that are the consequences of right choices in my past?

04 Into our life

1. The blessings and curses of my life are given only as a result of the choices I have made. As a result of my choices, will I be blessed with salvation and eternal life, or will I be rebuked and disciplined? Let's be honest with ourselves.
2. Is there anything you think that the results of the right choices in my past have now been given to me unfairly?

05 Memory Verse Deuteronomy 28:1

And if you faithfully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being careful to do all his commandments that I command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1. Do you believe that God knows everything I have said and done and will repay me exactly as I have done?
2. Is God always fair and fair to me, or is He unfair?